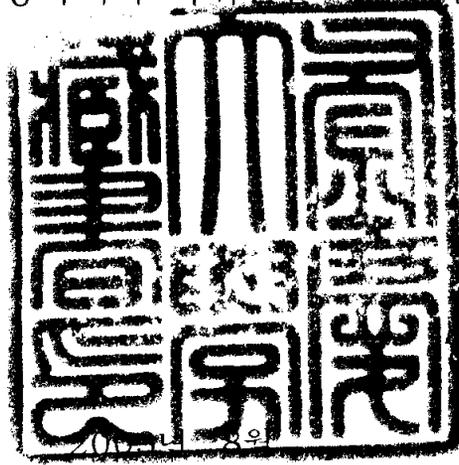


공학석사 학위논문

현대 불상의 사진적 표현에 관한 고찰

지도교수 김 종 태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사진정보공학과

김 진 철

이 논문을 김진철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03년 7월 11일

주 심 임 권 택



위 원 김 종 태



위 원 황 철 환



目 次

Abstract

I. 序 論	1
II. 本 論	3
1. 작품의 컨셉(concept)	3
2. 작품의 촬영	3
A. 작품 1 - 안국선원 법당 전경	5
B. 작품 2 - 본존불	6
C. 작품 3 - 문수보살	7
D. 작품 4 - 문수보살 부분	8
E. 작품 5 - 보현보살 부분	9
F. 작품 6 - 사천왕	10
G. 작품 7 - 동진보살	11
H. 작품 8 - 비로자나불	12
I. 작품 9 - 보현보살	13
J. 작품 10 - 문수보살	14
K. 작품 11 - 본존불	15
L. 작품 12 - 관세음 보살	16
M. 작품 13 - 관세음 보살	17
N. 작품 14 - 기룡 관세음 보살	18
O. 작품 15 - 42수 관세음 보살	19
III. 結 論	20
IV. 參 考 文 獻	21
도 판	22

A Study on the Photographic Presentations of Modern Buddhist Image

Jin - Choul, Kim

*Department of Photographic Science &
Informat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ach medium of Art should work in accordance with its peculiar characteristic. The work of picture is the same. The characteristic of picture can be divided into “inner characteristic” connected with the consciousness of a photo artist and “outer characteristic” connected with the reflection of picture. Only when the characteristic of the surface and the inside in objects should be expressed simultaneously, spectators can be presented impression and sympathy.

This work is tried in the point of expressing the inner reflection of liveliness and mercy in Buddhist image. The image is to express the native emotion and life to our people and to be sacred for a long time as a mental relief. The first work in color is to photograph the sanctuary's whole view of Angukseonwon. From the second work to the seventh work, the main Buddhist image in color and the background in black and white are worked at the photoshop.

From the eighth work to the tenth work, the Buddhist image of Gilsangseonsa in Jiri mountain is to be expressed in the way of a realistic

description by means of only spot lighting of indoor sanctuary in color. From the twelfth work to the fifteenth work, Religious mysteries and artistic values of Buddhist image are to be emphasized by means of adjusting the lightings artificially in studio. The second work to the eleventh work are to be photographed in digital camera. The twelfth work to the fifteenth work were expressed by the Reversal film excellent in reappearances of color and having high contrast. This work tried to express the inner image of different forms by means of putting to practical use direct and diffusive sunlights differently.

In the twelfth work, the rear Buddhist image is to be expressed into glittering by high highlight of direct sunlight and the monotony of a ginkgo tree's material wood color is to be more cubic by mixing red colors of halogen modeling lamp in low speed shutter. In the fifteenth work, soft and merciful atmosphere is to be expressed by using diffusive sunlights. In this way, solemn and merciful lives of Buddhist image is tried to be expressed. From this time on, not to report only the form of objects but to inspire the lives in photo, the method of photographing shall be developed.

I. 序 論

어느 매체든 그 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매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각 예술 매체는 매체대로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이 특성을 살려 그에 맞는 작업을 할 때만이 그 작업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사진의 특성을 잘 알고 이해해야만 올바른 사진 작품이 제작될 수 있다.

사진의 특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진가의 의식과 이어지는 '내적 특성'과 사진 영상 형상으로 이어지는 '외적 특성'이 그것이다. 내적 특성은 의미적 특성이라고도 하는데, 사진의 의미를 결정지어 주는 요소이다. 반면에 외적 특성은 영상 형성 과정에서 생기는 메카니즘적 특징이다¹⁾. 따라서 어떤 사물을 촬영하였을 때,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형태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이 함께 표출되어야만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동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들레르(Charles Baudelare: 프랑스의 시인, 비평가)는 사진은 정확한 기록자일 수 있으면 충분하여, 그 이상으로 공상의 영역이나 인간의 정신만이 아는 영역에 침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분수에 넘어서는 짓이 된다²⁾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진을 하나의 기록으로만 볼뿐이며 예술로서의 가치관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예술적 상황은 형태만을 담은 기술적 단편과 대상의 내적 느낌과 분위기, 작가의 마음까지 일치시켜 담아내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와 작업이 단순한 형태의 포착에서 벗어나 생명력을 갖게 하고, 촬영 기술과 사진가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사진에서는 과학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서 대상의 내적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촬영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사진이란 현실이 아니라 현실적 이미지이며, 사진의 예술성은 사진이 하나의 이미지라는 인식 위

1) 「사진예술개론」, 한성식, 열화당, 2000, p32

2) 「사진예술론」, 重森弘淹, 홍순태 역, 해돋이, 1987, p26

에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진에 있어서의 리얼리티(reality)란 현실의 자동적 복사가 아니라 현실을 통한 의식의 창조를 뜻한다. '리얼한 사진'이라는 것은 현실 그대로의 사진이란 뜻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 재창조되어 보다 현실감있게 표현된 사진을 말한다. 사진가는 다양한 촬영 기술을 통해 사물의 외면적 특성만이 아니라 내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작업에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삶의 표현이자, 정신적·신앙적 지주로서 오랫동안 신성시되어 온 불상을 촬영함에 있어 불상의 내면적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신앙심을 갖게 하는 생명력과 불상이 지니는 자비의 내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시도하였다.

불상의 촬영에 있어서 사진가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표현기법과 혼신을 다 바쳐서 불상의 외형적 이미지와 함께 내적 이미지까지 표출하여 감동과 동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Ⅱ. 本 論

1. 작품의 컨셉(concept)

작품의 컨셉은 현대 불상의 외적인 형태와 내적 이미지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사진에서 불상이라는 외적 형태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상 자체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믿음이라는 그 내면적 이미지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불상은 그저 일개 조각품에 머물고 말 것이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상이 지니는 자비의 내적 이미지를 표출해야 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불상을 선택하게 되었고, 불상이 풍기는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법당에서 촬영하였다. 작품에서 주불(主佛)은 컬러로, 배경은 흑백으로 포토샵(photoshop)에서 작업하였다.

채색되지 않은 불상은 은행나무로 조각된 것이기 때문에 표면이 아이보리 색상을 띄고 있었다. 이 색상을 주광으로 촬영하면 전체적인 색상이 단조로울 수 있으므로, 저속 셔터로 모델링램프의 붉은 색을 띄게 하여 색을 변화시켰다.

2. 작품의 촬영

작품 1은 컬러로 안국선원 법당 전경을 촬영하였다.

작품 2에서 작품 7까지는 안국선원의 주불(主佛)은 컬러로, 배경은 흑백으로 포토샵(photoshop)에서 작업하였다.

작품 8에서 작품 10까지는 지리산 길상선사의 불상을 법당 실내의 조명만을 이용하여 컬러(color)로 촬영하여 불상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11에서 작품 15까지는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불상이 조각되어진 형태의 종교적 신비감과 불상이 지니는 예술적인 면을 부각

시켰다. 이를 통해 불상의 외형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이 동시에 표출되도록 촬영하였다.

작품 2에서 작품 11까지의 작업은 근래 광고사진에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주불이 가지는 자애롭고 신비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포토샵(photoshop)에서 배경을 흑백 처리하였다.

작품 12에서 작품 15까지는 색 재현력이 우수하고 높은 Contrast를 가지는 슬라이드(Reversal) 필름을 사용하였다.

A. 작품 1 - 안국선원 법당 전경

(1) 세트구성 : 서울 안국선원 법당 전경을 촬영하였다.

법당의 실내 조명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느낌이 나도록 촬영하였다.

(2) 촬영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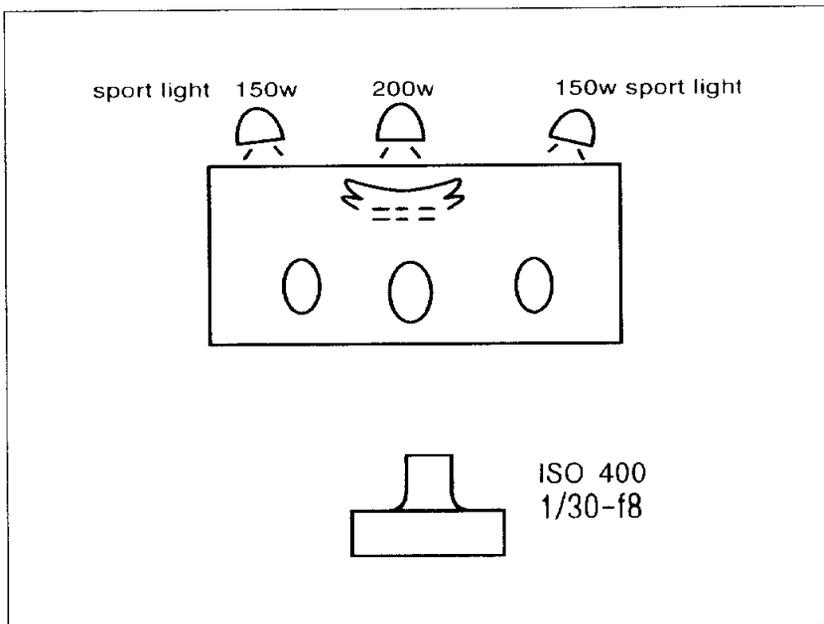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18-35 1:3.5-4.5 D

IBM 1GB MICRODRIVE

MANFROTTO TRIPOD 055

(3)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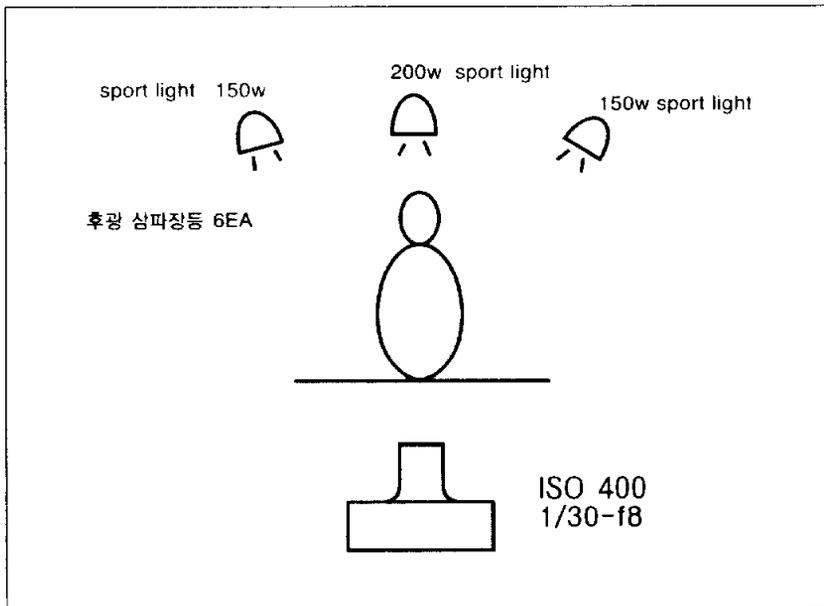
B. 작품 2 - 본존불

- (1) 세트구성 : 서울 안국선원 법당에서 현장 촬영하였다.
법당의 실내 조명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느낌이 나도록 촬영하였고, 배경의 흑백처리는 포토샵 6.0으로 작업하였다.

(2) 촬영장비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 35-70 1:2.8 D
IBM 1GB MICRODRIVE
MANFROTTO TRIPOD 055

(3) 조명



C. 작품 3 - 문수보살

(1) 세트구성 : 서울 안국선원 법당에서 현장 촬영하였다.

법당의 실내 조명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느낌이 나도록 촬영하였고, 배경의 흑백처리는 포토샵 6.0으로 작업하였다.

(2) 촬영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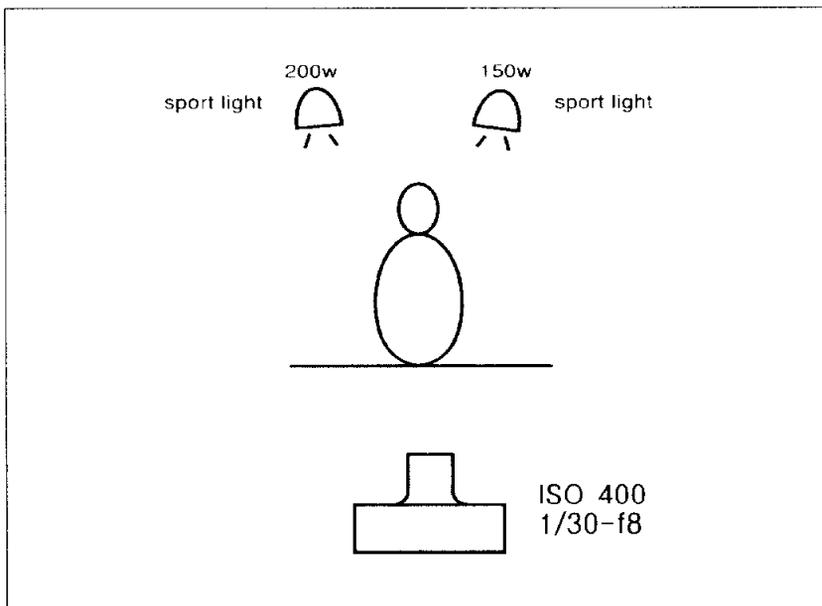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 35-70 1:2.8 D

IBM 1GB MICRODRIVE

MANFROTTO TRIPOD 055

(3) 조명



D. 작품 4 - 문수보살 부분

(1) 세트구성 : 서울 안국선원 법당에서 현장 촬영하였다.

법당의 실내 조명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느낌이 나도록 촬영하였고, 배경의 흑백처리는 포토샷 6.0으로 작업하였다.

(2) 촬영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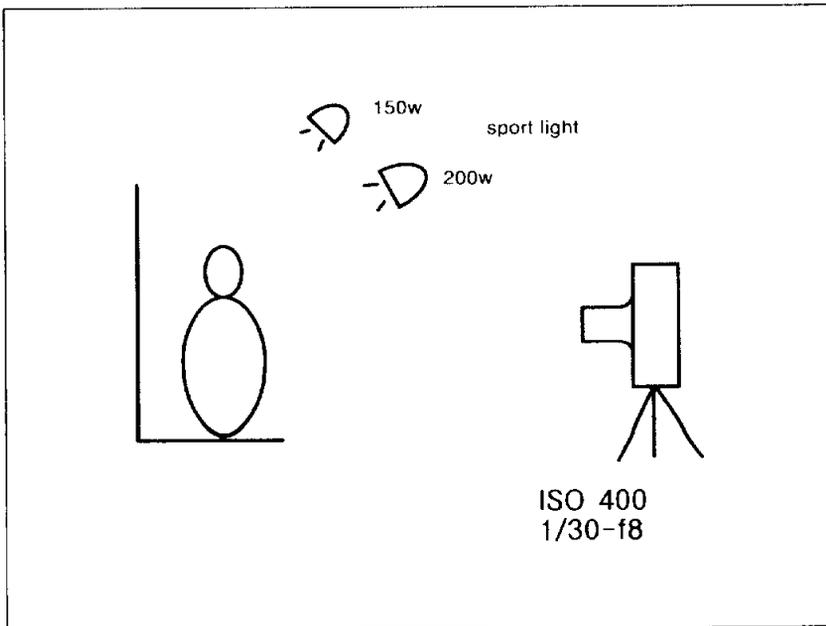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 35-70 1:2.8 D

IBM 1GB MICRODRIVE

MANFROTTO TRIPOD 055

(3) 조명



E. 작품 5 - 보현보살 부분

(1) 세트구성 : 서울 안국선원 법당에서 현장 촬영하였다.

법당의 실내 조명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느낌이 나도록 촬영하였고, 배경의 흑백처리는 포토샷 6.0으로 작업하였다.

(2) 촬영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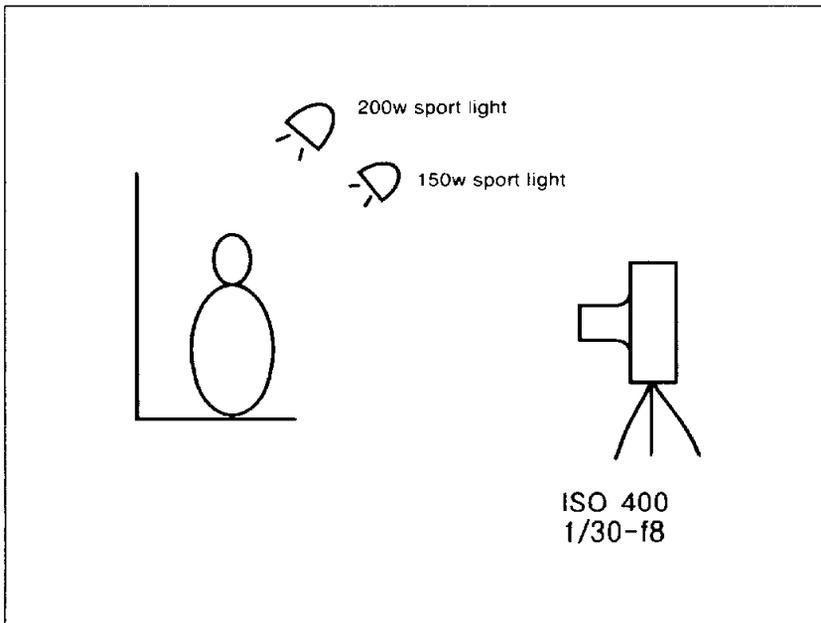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 35-70 1:2.8 D

IBM 1GB MICRODRIVE

MANFROTTO TRIPOD 055

(3) 조명



F. 작품 6 - 사천왕

(1) 세트구성 : 서울 안국선원 법당에서 현장 촬영하였다.

법당의 실내 조명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느낌이 나도록 촬영하였고, 배경의 흑백처리는 포토샵 6.0으로 작업하였다.

(2) 촬영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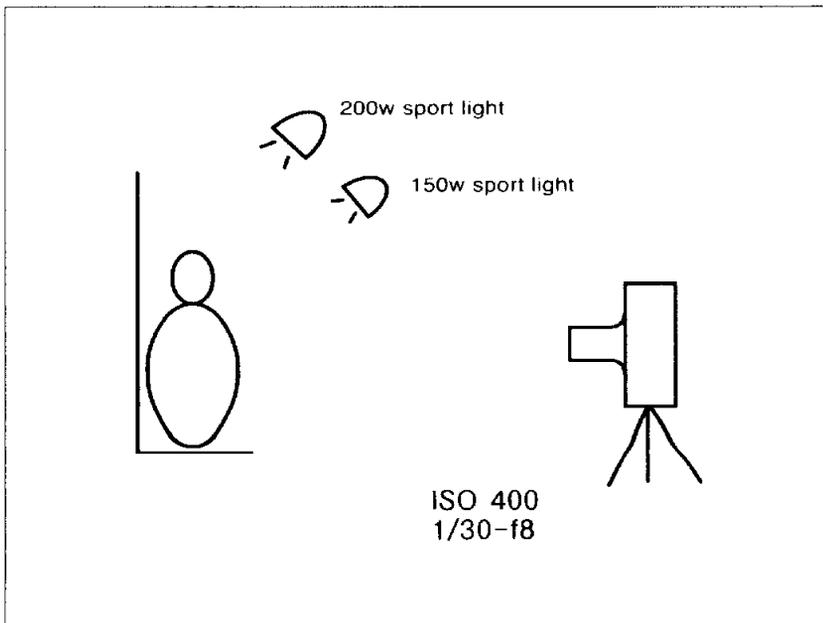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 35-70 1:2.8 D

IBM 1GB MICRODRIVE

MANFROTTO TRIPOD 055

(3) 조명



G. 작품 7 - 동진보살

(1) 세트구성 : 서울 안국선원 법당에서 현장 촬영하였다.

법당의 실내 조명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느낌이 나도록 촬영하였고, 배경의 흑백처리는 포토샵 6.0으로 작업하였다.

(2) 촬영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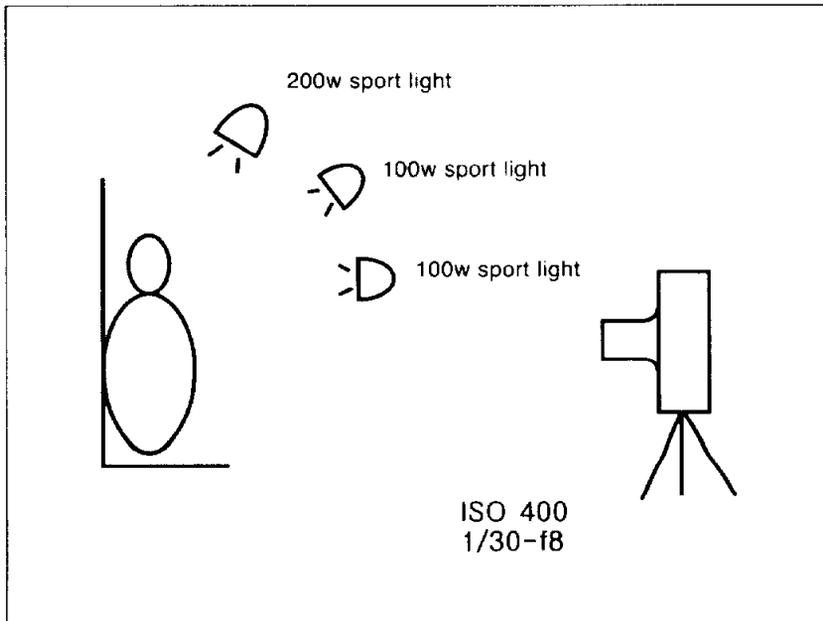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 35-70 1:2.8 D

IBM 1GB MICRODRIVE

MANFROTTO TRIPOD 055

(3) 조명



H. 작품 8 - 비로자나불

- (1) 세트구성 : 지리산 길상선사 법당에서 현장 촬영하였다.
· 법당의 실내 조명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느낌이 나도록 촬영하였다.

(2) 촬영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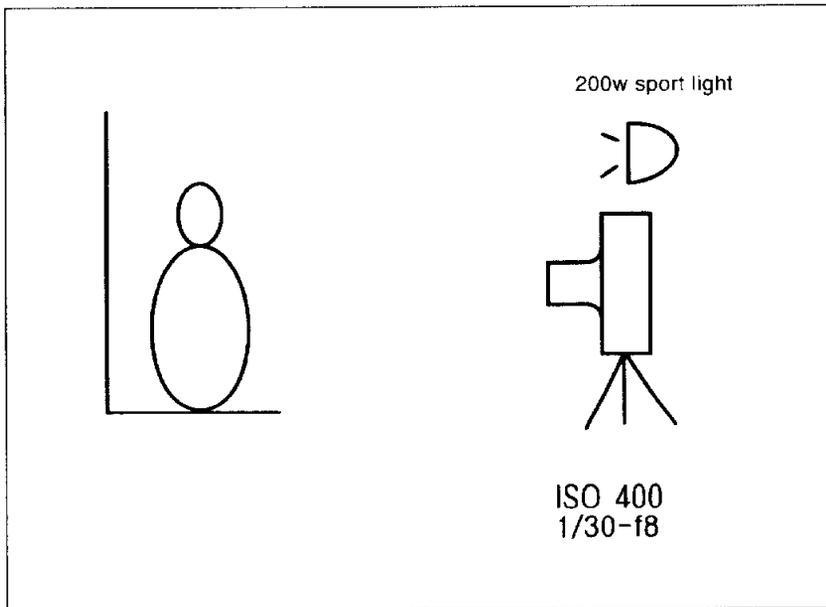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 35-70 1:2.8 D

IBM 1GB MICRODRIVE

MANFROTTO TRIPOD 055

(3) 조명



1. 작품 9 - 보현보살

(1) 세트구성 : 지리산 길상선사 법당에서 현장 촬영하였다.

법당의 실내 조명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느낌이 나도록 촬영하였다.

(2) 촬영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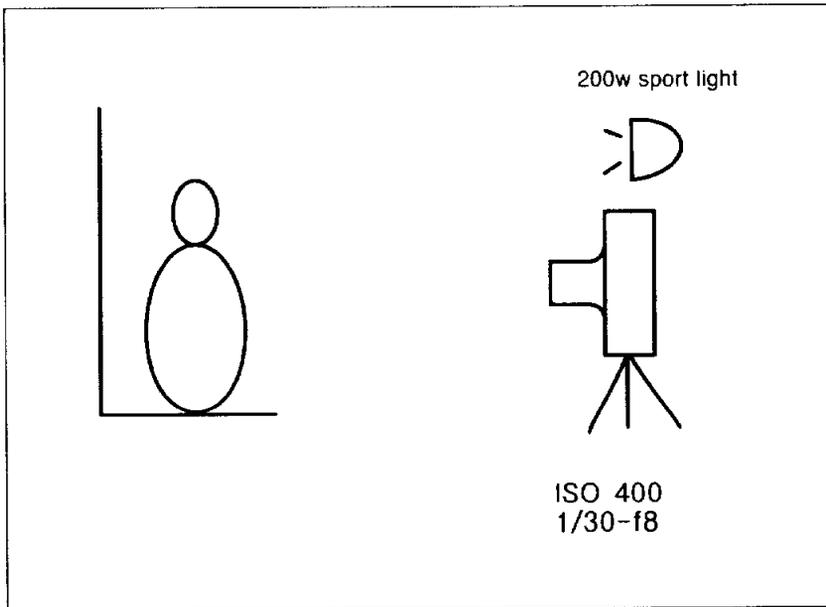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 35-70 1:2.8 D

IBM 1GB MICRODRIVE

MANFROTTO TRIPOD 055

(3) 조명



J. 작품 10 - 문수보살

(1) 세트구성 : 지리산 길상선사 법당에서 현장 촬영하였다.
법당의 실내 조명만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느낌이 나도록 촬영하였다.

(2) 촬영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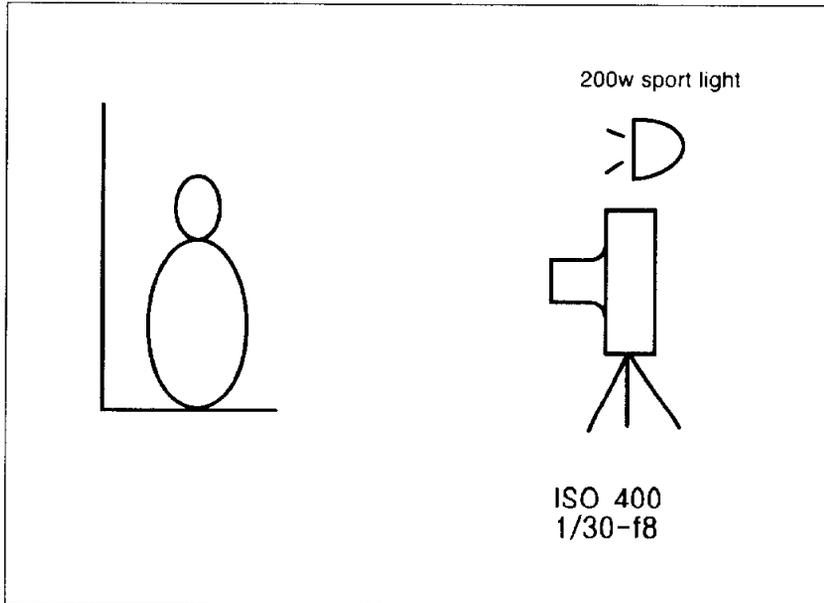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 35-70 1:2.8 D

IBM 1GB MICRODRIVE

MANFROTTO TRIPOD 055

(3) 조명



K. 작품 11 - 본존불

(1) 세트구성 : 불상의 내면적 자비와 형태적 신비감을 표현하기 위해 좌우 조명을 다르게 하여 명암대비를 만들었다. 배경은 검은색으로 하여 불상과 배경을 분리시키고, 어둠에서 자비의 빛이 발산하는 느낌이 들게 하였다.

(2) 촬영장비

FUJIFILM FINEPIX S1-PRO

NIKON AF 35-70 1:2.8 D

IBM 1GB MICROD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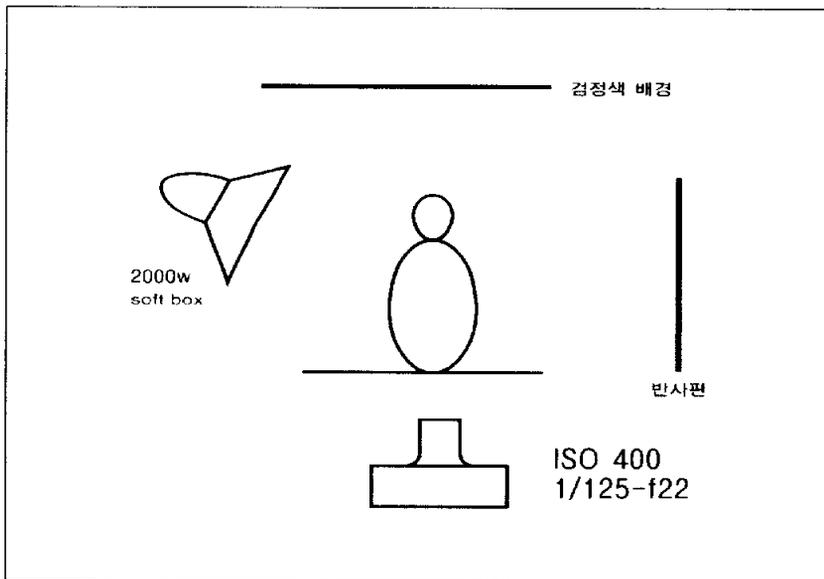
BOWENS QUAD MATIC 3K

BOWENS QUAD MATIC FLASH HEAD 3KH x 2

AURORA SOFT BOX 80 x 100

MANFROTTO TRIPOD 075

(3) 조명



L. 작품 12 - 관세음 보살

(1) 세트구성 : 불상의 후불이 빛이 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검정 색그라데이션 배경을 선택하였고, 측면 광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불상은 채색을 하지 않은 은행나무 원목 상태여서 색상은 연한 아이보리 색상 이었으나 저속촬영으로 할로겐 모델램프의 색 온도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장비

MAMIYA RZ 67 PRO II

MAMIYA-SEKOR Z 180mm 1:4.5

ELINCHROM 1500 CLASSIC

ELINCHROM S3000 FLASH HEAD x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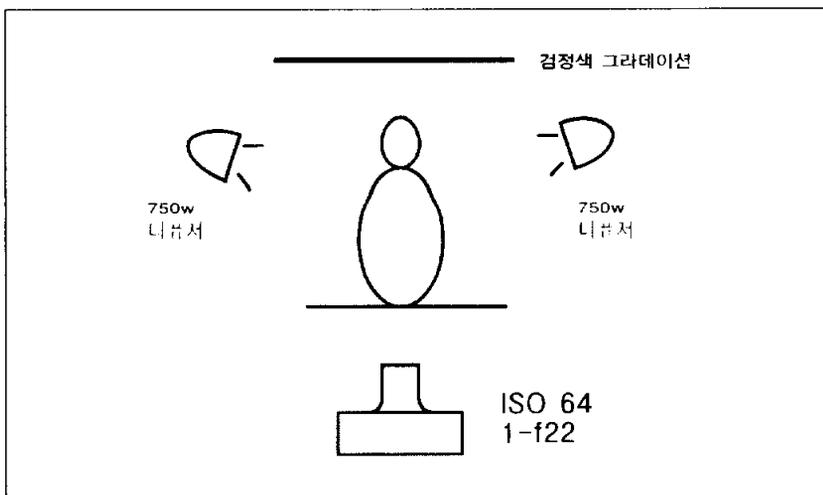
DIFFUSED

MINOLTA AUTO METER IV F

KODAK EPR 120 FILM

VERTICAL STAND

(3)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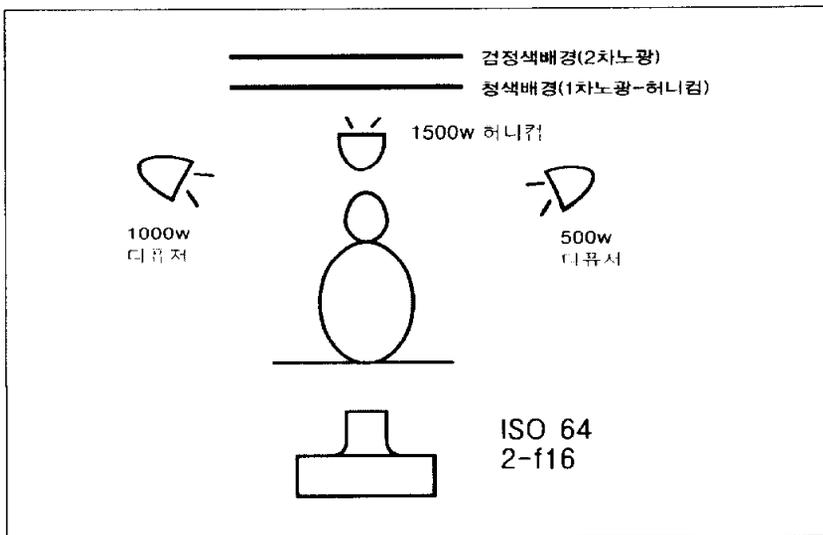
M. 작품 13 - 관세음 보살

(1) 세트구성 : 불상의 후광을 만들기 위해 청색배경에 HONEY COMB
 를 이용하여 1차 노광을 하고, 검은색 배경을 하여 불상에
 2차 노광 하여 다중 촬영으로 하였다.
 불상은 채색을 하지 않은 은행나무 원목 상태여서 색상은
 연한 아이보리 색상 이였으나 저속촬영으로 할로겐 모델램
 프의 색 온도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장비

MAMIYA RZ 67 PRO II
 MAMIYA-SEKOR Z 180mm 1:4.5
 ELINCHROM 1500 CLASSIC
 ELINCHROM S3000 FLASH HEAD x 2
 DIFFUSED
 MINOLTA AUTO METER IV F
 KODAK EPR 120 FILM
 VERTICAL STAND

(3) 조명



N. 작품 14 - 기룡 관세음 보살

(1) 세트구성 : 불상과 배경을 분리시키기 위해 검정색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였고, 측면 광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불상은 채색을 하지 않은 은행나무 원목 상태여서 색상은 연한 아이보리 색상 이었으나 저속촬영으로 할로겐 모델램프의 색 온도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장비

MAMIYA RZ 67 PRO II

MAMIYA-SEKOR Z 180mm 1:4.5

ELINCHROM 1500 CLASSIC

ELINCHROM S3000 FLASH HEAD x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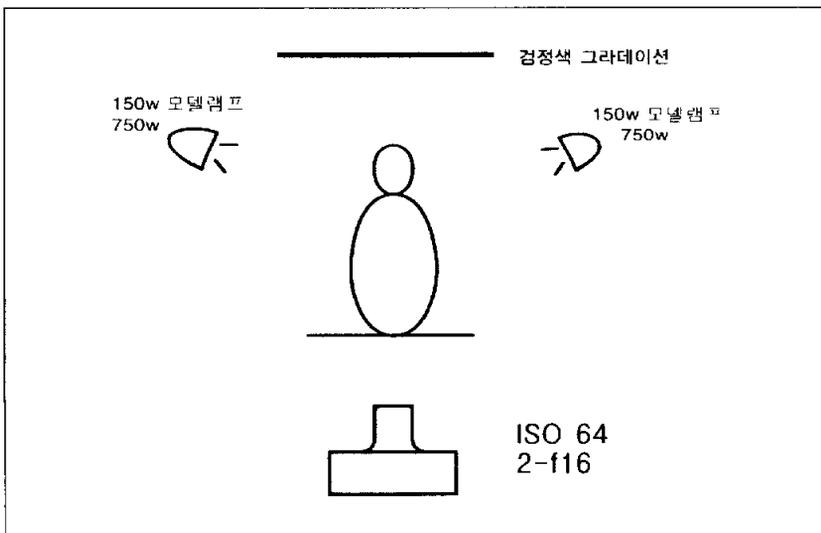
DIFFUSED

MINOLTA AUTO METER IV F

KODAK EPR 120 FILM

VERTICAL STAND

(3) 조명



O. 작품 15 - 42수 관세음 보살

(1) 세트구성 : 불상과 배경을 분리시키기 위해 검정색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였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직사광을 피하고 SOFT BOX를 사용하였다. 불상은 채색을 하지 않은 은 행나무 원목 상태여서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이었으나 저속촬영으로 할로겐 모델램프의 색 온도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장비

MAMIYA RZ 67 PRO II

MAMIYA-SEKOR Z 110mm 1:2.8

BOWENS QUAD MATIC 3K

BOWENS QUAD MATIC FLASH HEAD 3KH x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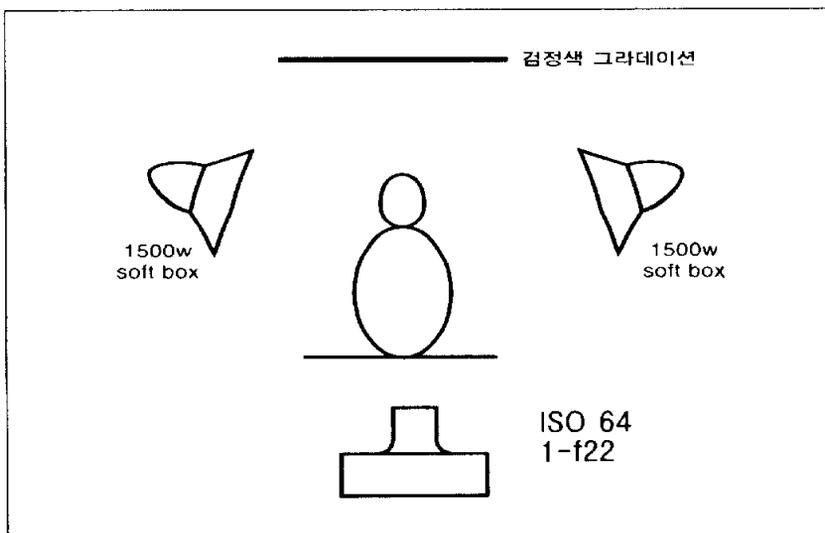
AURORA SOFT BOX 80 x 100

MINOLTA AUTO METER IV F

KODAK EPR 120 FILM

VERTICAL STAND

(3) 조명



Ⅲ. 結 論

사진 속의 대상에는 독자적인 리얼리티(reality)가 존재한다. 그것은 대상 자체에 내재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실의 사물형태에 대한 이미지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의식 속에 고정시키곤 한다.

하지만 사진가의 조명방법에 따라 다른 형태의 내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즉, 직사광은 물체의 가장 자리를 선명하게 하면서 밝은 하이라이트와 어두운 그림자를 강하게 나타낸다. 반면에 확산광은 피사체를 모든 방향에서 감싸기 때문에 그림자는 약하거나 없게 되며, 직사광일 때보다 색상은 덜 화려하고 파스텔이나 혼합된 톤을 띄게 된다. 확산광은 직사광보다 어두우므로 작은 렌즈 구경이나 빠른 셔터 속도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³⁾.

본 작품에서는 직사광과 확산광을 차별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형태의 내적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작품 12에서 직사광의 높은 하이라이트로 후불이 빛이 나는 듯한 분위기를 표현하였고, 저속 셔터로 할로겐 모델링램프의 붉은 색을 작품에 가미하여 은행나무 원목색상의 단조로움을 더욱 입체화하였다. 작품 15에서는 확산광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작품 12와 같이 저속 셔터로 붉은 색을 가미하였다.

본 작품에서 본인이 시도한 작업은 불상의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의 생명력 탐구이었다. 사진적 표현방법으로 라이팅(lighting) 기법이 대상의 입체감이나 현실감을 북돋워주는 강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불상의 근엄하면서도 자비로운 표현과 생명력을 담는데 노력하였다. 하지만 불상은 불교에서 신성시되는 믿음의 대상체이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도 사물의 형태만을 기록하는 사진에 끝내지 않고 생명력까지 넣을 수 있는 발전된 촬영기술 방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3) 「사진실기」, 바바라 런던 지음, 김남진 옮김, 눈빛, 1994. p118

Ⅲ. 참고 문헌

1. 『사진예술개론』, 한정식, 열화당, 2000.
2. 『사진예술론』, 重森弘淹, 홍순태 역, 해돋이, 1987
3. 『사진실기』, 바바라 런던 지음, 김남진 옮김, 눈빛, 1994

도 판



작품 1 - 안국선원 법당 전경



작품2 - 본존불



작품3 - 문수보살



작품4 - 문수보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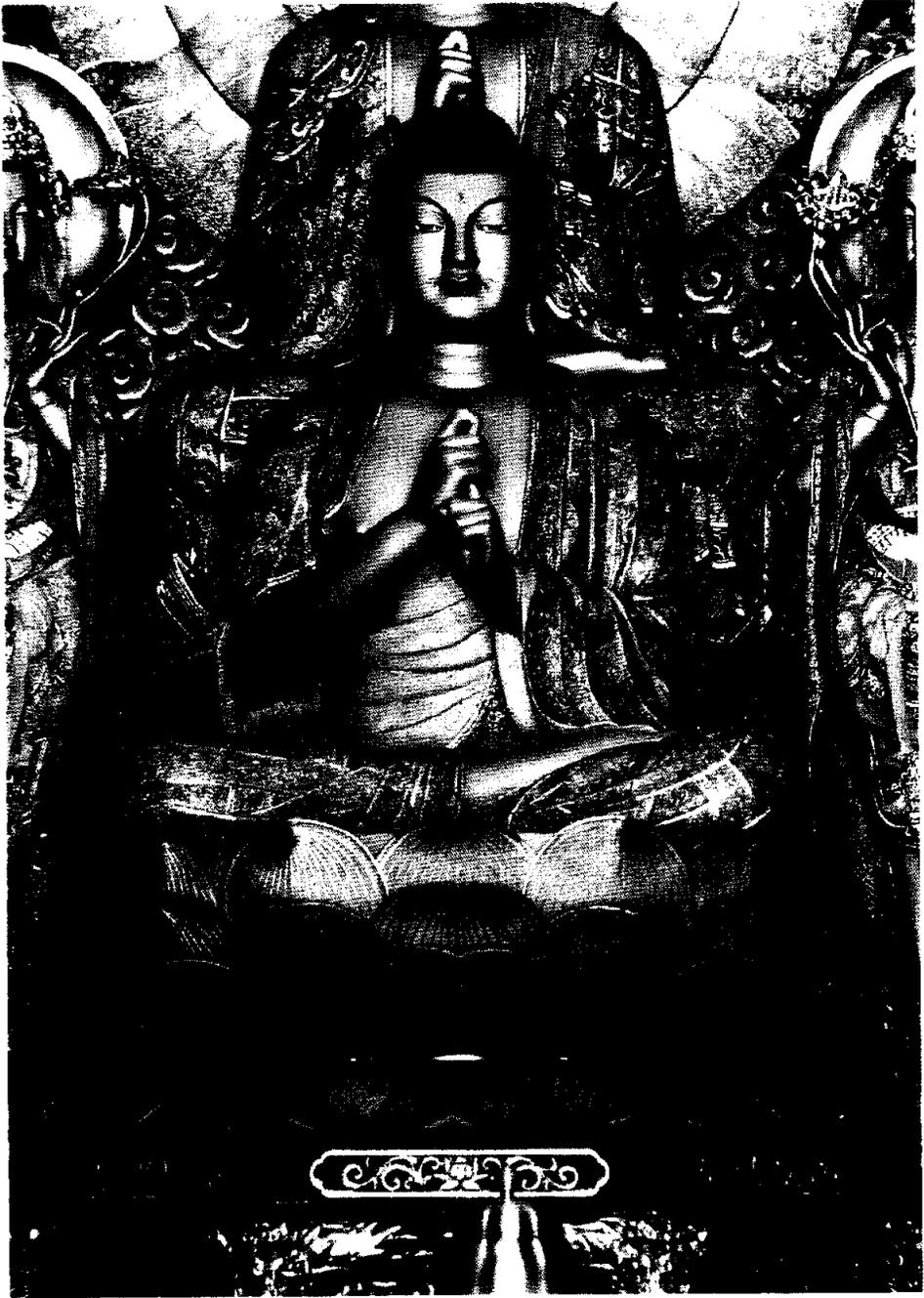
작품5 - 보현부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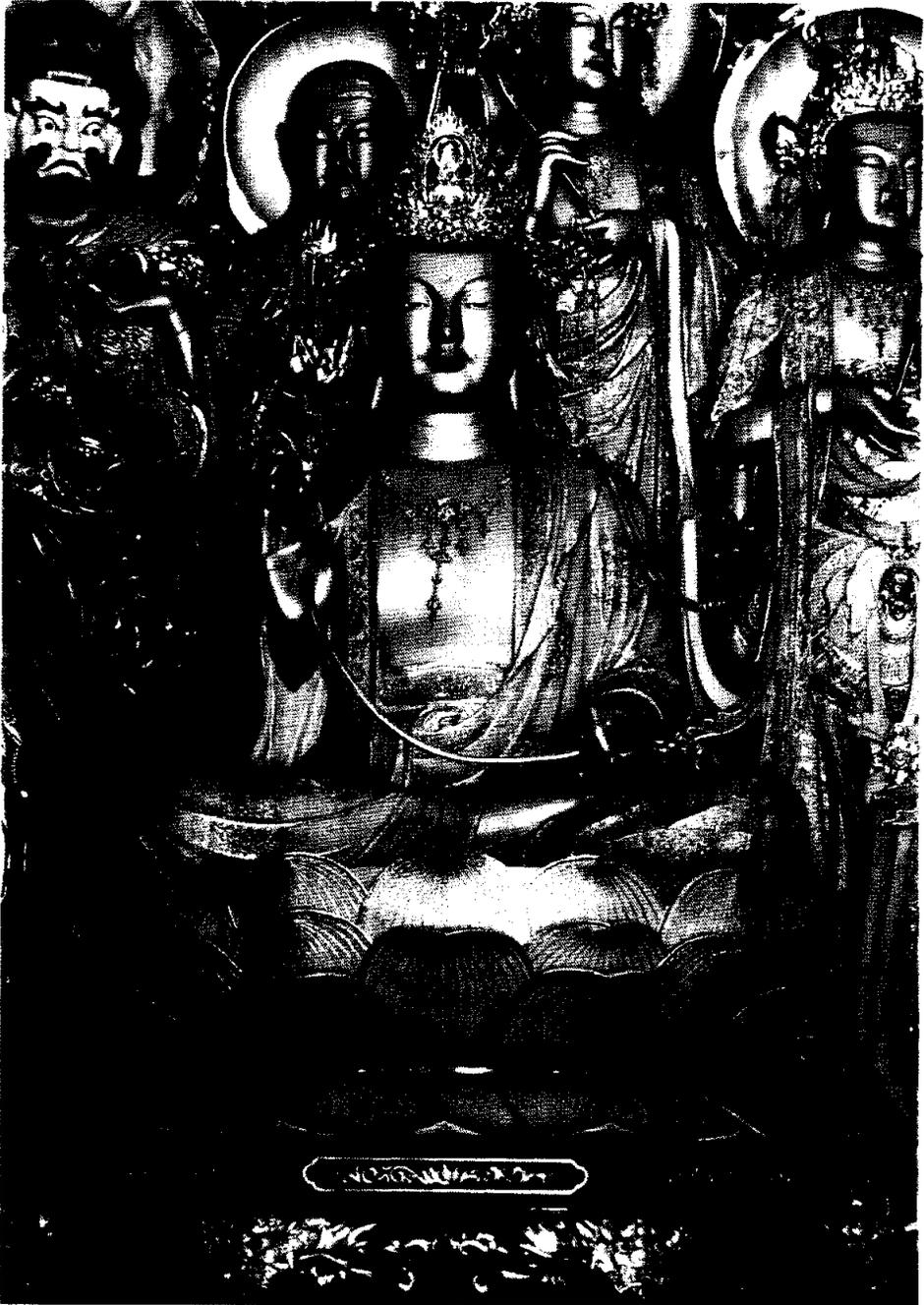
작품6 - 사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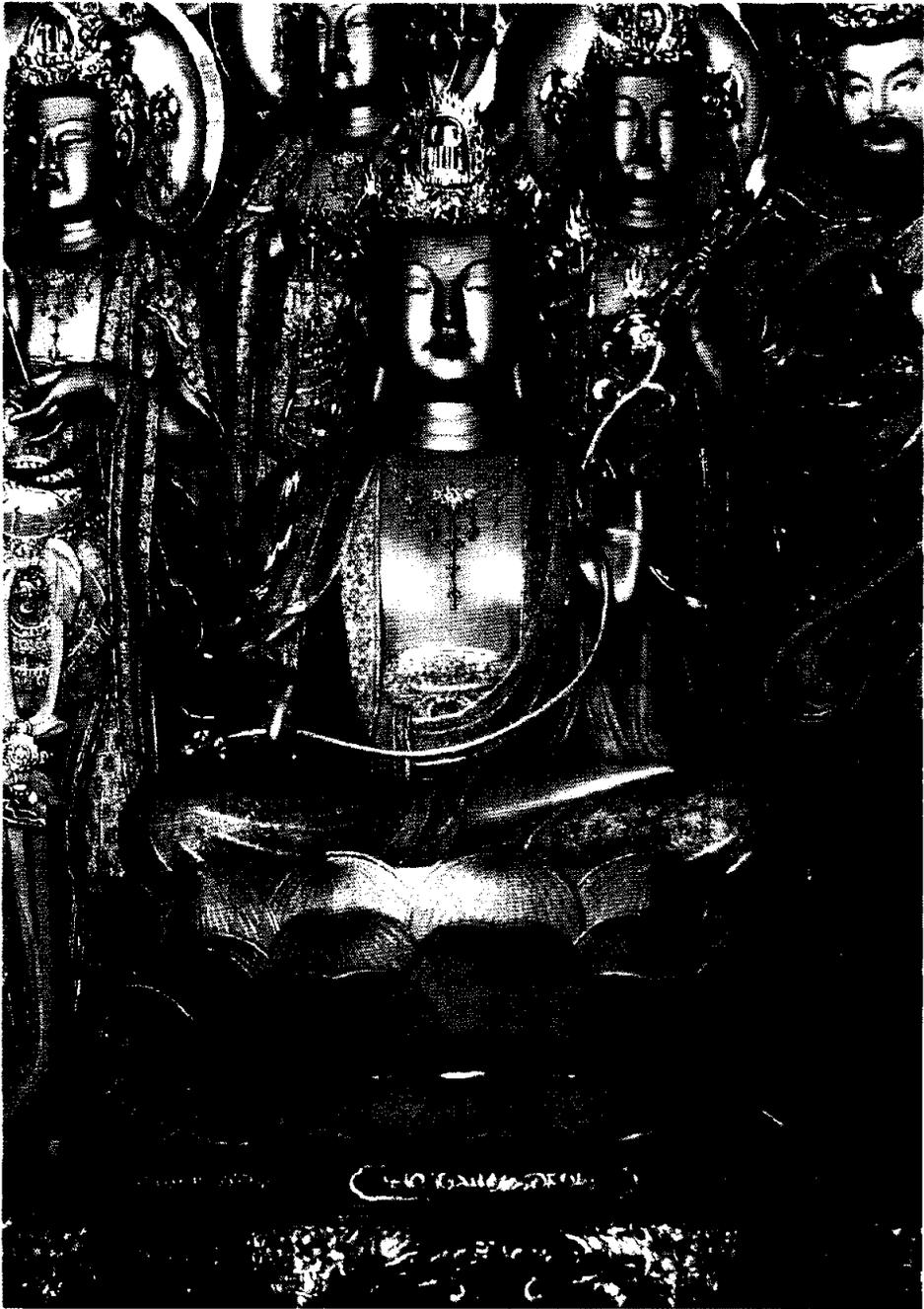
작품 7 - 동진보살



작품 8 - 비로자나불



작품 9 - 보현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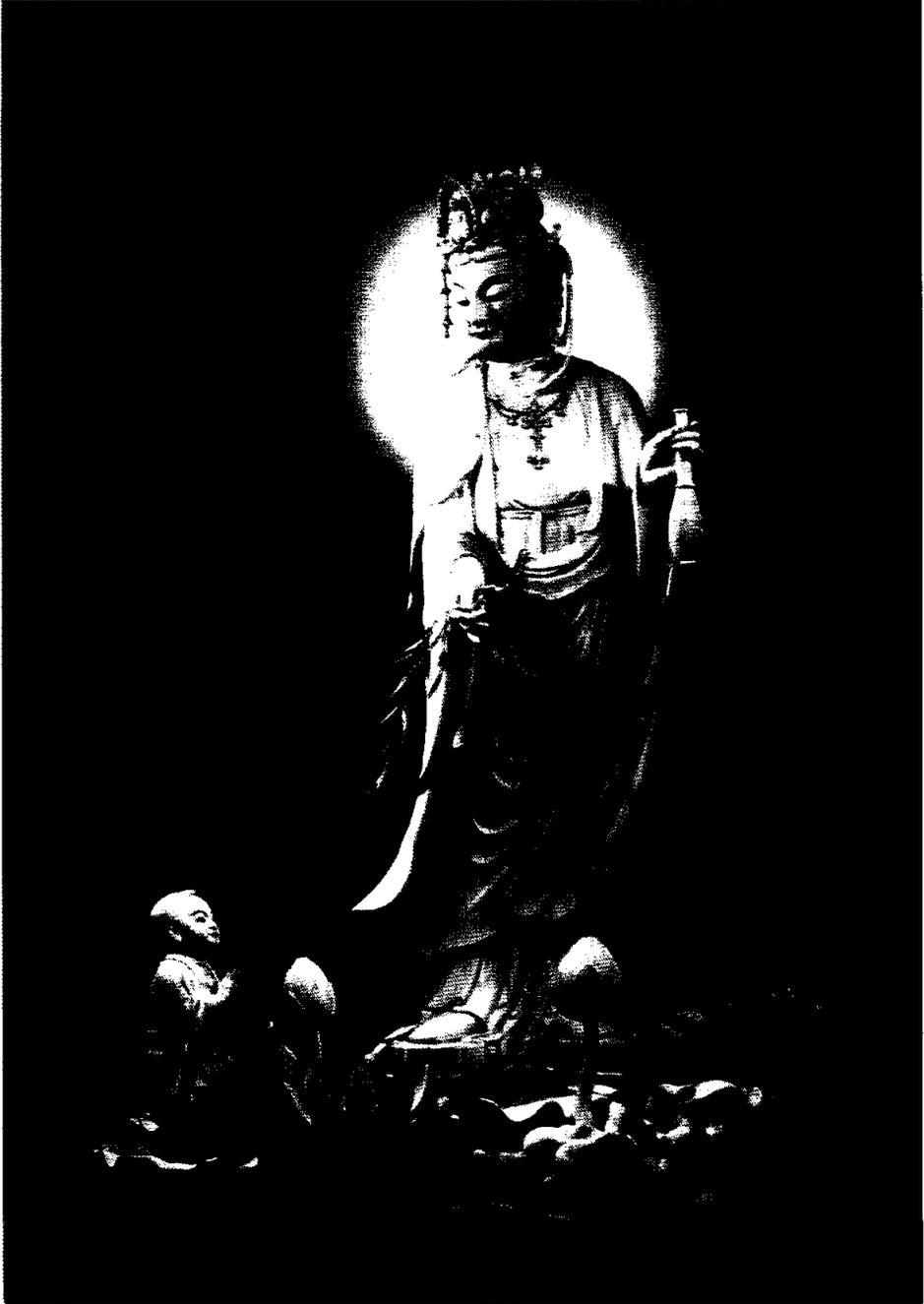
작품 10 - 문수보살



작품 11 - 본존불



작품 12 - 관세음 보살



작품 13 - 관세음보살



작품 14 - 기룡 관세음 보살



작품 15 - 42수 관세음 보살